

▶ 달러/원 주간 전망

• 정국 혼란에 원화 약세 비대칭적 움직임..당국발 안정 지속 관건

서울, 12월9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촉발한 국내 정치 혼란에 제대로 휩쓸린 달러/원 환율은 이번 주 역시 변동성 확대 위험을 감수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400-1445원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이에 여당은 질서있는 조기퇴진을, 야당은 즉각 탄핵을 밀어부치는 등 정국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여야의 극단적인 대립구도 속 중장기적인 정치 불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시장은 극도의 불안 장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

전주말 미국 고용지표 결과를 소화하면서 12월 연준 금리 인하 확률은 높아졌지만 달러는 강세였다. 한편 나스닥지수와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장을 마감했다. 다만, 원화는 강달러만 반영하며 미국 기술주 호조에 따른 수혜는 전혀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장 후반 달러/원 NDF 1개월물은 1423원선에 최종호가돼 현물기준으로 직전 서울 현물 증가 대비 약 5원 상승했다.

대외 약재도 만만치 않은데 한국 정치 불확실성이라는 대형 약재가 터진 만큼 한국 금융시장을 둘러싼 심리는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주 외환당국의 발빠른 시장 대응조치로 원화에 대한 대대적인 셀오프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탄핵안 폐기에 따른 리스크 확대 국면을 당국이 어떻게 막아설지가 관건이 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8일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주 외인들이 계엄사태 이후 약 1조원 물량을 쏟아냈지만, 채권시장에서는 이렇다할 외인 자금 유출이 관측되지 않으면서 당국의 시장안정노력이 보다 효력을 발휘했다. 이에 전반적인 시장심리는 제어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안 폐기와 이후 정국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된 현 국면에서 외인 투자자들의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울 밖에 없다.

이번 주 주목되는 대외 경제지표로는 미국 물가지표가 우선 꼽힌다. 12월 연준 정책회의를 앞두고 견조한 고용이 확인된 가운데 물가지표를 통해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시장 전망이 뒤따를 전망이다. 로이터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망치는 전월비 0.2%로 10월과 동일한 수치다.

한편, 중국은 물가지표 및 수출입 결과 등이 발표된다. 한편,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경제 목

표와 경기 부양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또한, 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스위스 등의 정책회의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요국 통화정책회의 결과와 이에 글로벌 달러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관건이다.

이러한 대외 재료들을 소화하며 행여 달러 약세와 위안 강세 여건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원화가 이에 편승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보다 약세 변동성이 얼마나 잘 제어될지가 최대 관심이다. 나홀로 원화 약세가 얼마나 가파르게 그리고 공격적으로 진행될지 관건인 가운데 외환당국의 효율적인 수비가 잘 들 어먹힐지 주목되는 한주다.

(박예나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세계 이슈

비트코인이 10만달러 장벽을 돌파하면서 암호화폐가 주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주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연준의 금리 조정 압력이 얼마나 큰지 보여줄 것이며, 유럽, 호주, 브라질의 중앙은행 정책회의도 예정돼있다.

⊙ ECB 정책회의..금리 인하 전망

ECB 정책 결정자들에게 지난 10월 회의는 마치 오래 전 일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 이후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로 인해 유로 지역은 관세 부과 가능성으로 새로운 경제적 고통에 직면했고,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6개월 만에 두 번째 정치 위기에 휩싸이며 붕괴했다. 이 모든 것은 기업 활동이 악화되고 있는 유로존에 타격을 입혔고 유로는 하락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유럽중앙은행(ECB)는 오는 목요일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추가 금리 인하도 전망된다.

인플레이션이 회복되면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신중함과 데이터 의존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 호주, 캐나다, 스위스 정책회의

오는 화요일에 만나는 호주 중앙은행은 곤경에 처해 있다. 경제는 침체되고 있고 통화는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지속됨에 따라 금리 인하가 반복될 가능성은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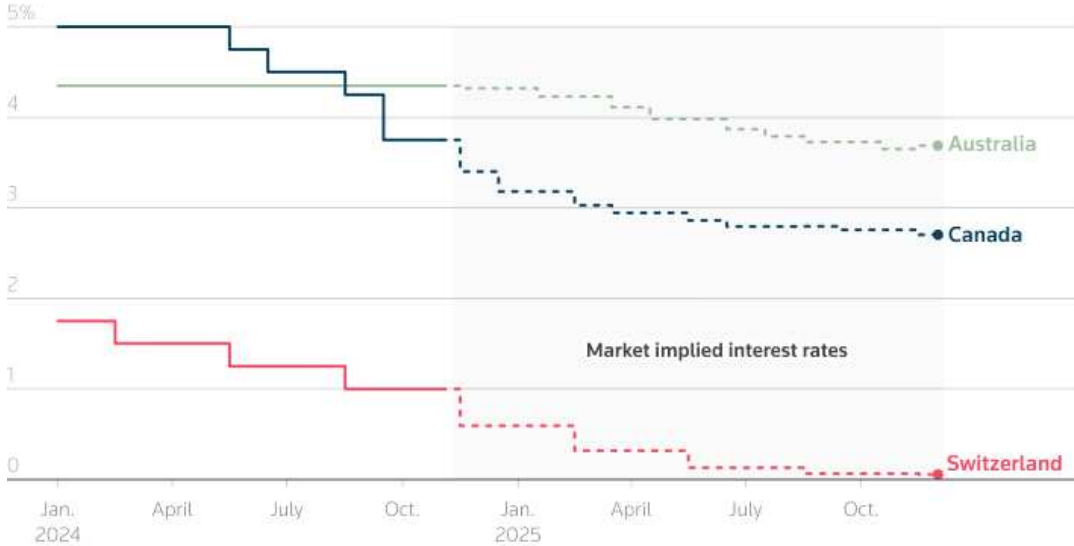
이번 주 RBA의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15% 미만이며, 내년 7월까지로 봐도 금리는 50bp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반면 캐나다 중앙은행은 추가 인하를 바라는 투자자들의 요구에 응답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은 과거의 일이며 추가 인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12월11일 회의에서 25bps 또는 50bps 인하를 단행할지 여부에 대해 시장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G10 중앙은행 중 가장 비둘기파적인 스위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0.7%로 12월12일 금리를 50bps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Cuts ahead for Australia, Canada and Swiss central banks

Market pricing indicates that the three central banks are expected to cut rates until mid-2025.



Note: Market implied rates are as of 10 AM GMT on Dec. 5.

Source: LSEG | Reuters, Dec. 5, 2024 | By Sumanta Sen

⊙ 美 CPI와 연준 금리 전망

향후 몇 달간 연방준비제도 정책 경로를 예측하는 시장은 수요일에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를 확인하게 된다. 연준은 지난 9월 이후 수개월간 인플레이션이 냉각됨에 따라 기준 금리를 75bp 인하했으며, 12월 말에 추가로 25bp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앞으로의 길은 불투명하다.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한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속도를 서두를 이유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이 강력한 수치를 근거로 내년에 연준이 얼마나 인하할지를 두고 언와인딩하면 채권 매도를 재점화하고, 달러를 강화할 수 있다. 로이터가 여론 조사한 이코노미스트들은 11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비 0.2% 상승해 10월과 일치할 것으로 예상했다.

⊙ 비트코인 브레이크아웃

미국을 "지구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 이후 비트코인이 10만달러를 넘어서는 기록적인 급등은 불가피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2시간 만에 9만9000달러 이하에서 10만3619달러까지 치솟는 등 놀라운 방식으로 급등했다. 그 촉매제는 트럼프가 암호화폐 베테랑인 폴 앳킨스를 SEC의 수장으로 선택한 것일 수 있다. 물론 10만달러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비트코인의 합법성을 향한 16년간의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진다.

이미 내년 15만달러와 같은 숫자가 언급되고 있지만, 일봉, 주봉, 월봉, 분기봉 차트에서 과매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Bitcoin hits \$100,000

Bitcoin has doubled this year, and is up about 45% in the four weeks since Trump's election victory in the U.S.



Note: Data as of Dec. 5, 2024, 04:04 GMT

Source: LSEG Workspace | Reuters, Dec. 5, 2024 | By Pasit Kongkunakornkul and Tom Westbrook

○ 브라질 금리 결정

브라질 중앙은행은 오는 수요일에 로베르토 캄포스 네토 총재 주재로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며, 금리를 11.25%로 올린 두 번의 인상 이후 75bp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베팅이 이뤄지고 있다.

12월19일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인 캄포스 네토 총재는 재정 충격이 라틴 아메리카 최대 경제국의 환율과 장기 수익률에 대한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기대를 모았던 정부의 재정 패키지는 시장을 실망시키며 주요 자산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을 높였다.

브라질 해알화는 올해 들어 달러 대비 약 20% 약세를 보였으며, 3분기에 나타난 강력한 경제 회복세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산적한 과제와 씨름하는 가운데, 의회는 지출을 억제하고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연준 회의 임박 속 美 인플레이션 지표, 증시 랠리 시험대

- 11월 美 CPI 전년비 2.7% 상승 전망
- S&P500 연간 27% 이상 상승
- 고용 보고서 발표 후 연준 금리 인하 예상

뉴욕, 12월9일 (로이터) - 이번 주 발표될 인플레이션 지표는 기록적인 미국 증시 랠리의 강도를 시험하고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S&P500지수는 3주 연속 주간 상승세를 이어가 연간 27% 넘게 상승했다. 경제가 회복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장밋빛 증시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역사적으로 강력한 주가 상승을 가져왔으며, 11월 월간 일자리 증가율이 예상보다 높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했다. 이러한 고용 데이터는 연준이 12월17~18일 회의에서 금리 궤도를 재고하게 할 만큼 노동시장 여건의 중대한 변화를 시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는 수요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율이 예상보다 높을 경우 낙관적인 전망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는 고공행진하는 주식에 도전이 될 수 있다.

존 헨콕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공동 수석 투자 전략가인 매튜 미스킨은 "물가가 급등하면 주식 시장이 소화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연준 회의를 앞두고 약간의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베팅은 11월 고용보고서 이후 확고해졌다. 데이터에 따르면 일자리는 22만7000개 증가했지만 실업률은 4.2%로 상승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정오 현재 연준이 25bp 인하할 확률은 거의 90%에 달했다.

TD 증권사의 미국 금리 전략가 물리 맥고운은 다음 연준 회의에서 물가지표가 금리 인하 계획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준"이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데이터에 따르면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비 2.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스킨은 CPI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오면 연준은 2025년 인하에 대한 기대치를 완화해 "매파적 인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수입품 관세 인상 계획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부활 가능성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TD 증권사 맥고운은 연준이 1월 취임 후 트럼프 재정정책을 평가하면서 연초 금리 인하를 중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맥고운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으로부터 실제 정책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때부터 통화 정책을 어떻

게 할 것인지 파악하는 틀에 넣기 시작할 것이라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투자 심리가 걱정스러운 정도로 낙관적으로 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LSEG 데이터스트림에 따르면 S&P500지수는 향후 12개월 예상 수익의 22.6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주가수익비율(P/E)이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계절적으로 주식이 강세를 보이는 연말까지 증시 전망이 견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션와이드의 투자 리서치 책임자 마크 해켓은 이메일에서 "고용 시장 압박, 금리 변동, 연준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등 연초의 약세 주장이 상당히 완화됐다"면서 "연말까지 이러한 추세가 어떻게 반전될지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예나 기자)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이벤트

12월9일 (일)

⊙ KDI: KDI 경제동향(2024.12) (12:00)

12월10일 (화)

⊙ 금융감독원: 2024년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06:00)

⊙ 기획재정부: 2025년 제1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12:00)

12월11일 (수)

⊙ 관세청: 12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

⊙ 통계청: 2024년 11월 고용동향 (08:00)

⊙ 기획재정부: 24.12월 ADB 아시아경제전망(ADO) (09:00)

⊙ KDI: 2024 KDI 컨퍼런스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11:00)

⊙ 한국은행: 2024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 (12:00)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4년 11월중 가계대출 동향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12:00)

⊙ 기획재정부: 부총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15:00)

12월12일 (목)

⊙ 한국은행: 금통위 본회의 (비통방, 10:00)

⊙ 기획재정부: 2024년 12월 재정동향(10월말 누계기준) (11:00)

⊙ 한국은행: 2024년 11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12:00)

⊙ 한국은행: 장용성 위원 한은-한국경제발전학회 심포지엄 환영사 (14:00)

12월13일 (금)

⊙ 한국은행: 2024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 (06:00)

- ⊙ 기획재정부: 2024년 12월 최근 경제동향 (10:00)
- ⊙ 한국거래소: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종목 특별변경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12월9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치	이전 수치
12월9일	08:50	일본	경상수지 NSA JPY	10월	2,318.0B	1,717.1B
12월9일	08:50	일본	GDP 수정치 QQ 연율	3분기	0.9%	0.9%
12월9일	10:30	중국	PPI YY	11월	-2.8%	-2.9%
12월9일	10:30	중국	CPI YY	11월	0.5%	0.3%
12월9일	18:30	유로존	센틱스지수	12월	-13.5	-12.8
12월10일	00:00	미국	고용추이	11월		107.66
12월10일	20:00	미국	NFIB 기업낙관지수	11월		93.7
12월10일		중국	수출 YY	11월	8.5%	12.7%
12월10일		중국	수입 YY	11월	0.3%	-2.3%
1 2 월 10-17일		중국	총통화(M2) 공급 증가율 YY	11월	7.5%	7.5%
1 2 월 10-17일		중국	신규 위안화 대출	11월	990.0B	500.0B
1 2 월 10-17일		중국	FDI (YTD)	11월		-29.80%
12월11일	08:00	일본	로이터 단칸 제조업지수	12월		5
12월11일	08:50	일본	기업상품가격지수 MM	11월	0.2%	0.2%
12월11일	21: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12월6일 주간		213.9
12월11일	22:30	미국	CPI MM, SA	11월	0.2%	0.2%
12월12일	04:00	미국	연방예산	11월		-257.00B

12월12일	22: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2월2 일 주간	220k	224k
12월12일	22:30	미국	PPI MM	11월	0.3%	0.2%
12월13일	08:50	일본	단칸 대형 제조업지수	4분기	12	13
12월13일	13:30	일본	산업생산 수정치 MM SA	10월		3.0%
12월13일	19:00	유로 존	산업생산 MM	10월	-0.1%	-2.0%
12월13일	22:30	미국	수입물가 MM	11월	-0.2%	0.3%
12월13일	22:30	미국	수출물가 MM	11월	-0.1%	0.8%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2월9일 (월)

- ⊙ 호주 중앙은행 금리 결정 회의 (10일까지)

12월10일 (화)

- ⊙ 호주 중앙은행 금리 결정 발표 (오후 12시30분)
- ⊙ 휴장국가: 태국

12월11일 (수)

- ⊙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결정 발표 (오후 11시45분)

12월12일 (목)

- ⊙ 유럽중앙은행(ECB) 금리 결정 및 발표 (오후 10시15분),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기자회견 (오후 1시 45분)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종합)-韓 정치적 위기에 대한 해외 투자자 반응.."코리아 디스카운트 부각시켜..지속적 영향은 낮아"

싱가포르, 12월4일 (로이터) -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몇 시간 뒤 해제하고 의원들이 탄핵을 추진하는 등 수십 년 만의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은 한국 증시가 4일 하락했다.

화요일 밤의 깜짝 선언은 시장을 뒤흔들었고, 원화 가치KRW=KFTC 는 화요일 2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수요일에는 안정세를 보였다. 벤치마크 코스피 지수(.KS11)는 2% 가까이 하락했다.

다음은 펀드 매니저들의 의견이다:

- ◆ 로버트 카넬, ING 아시아-태평양 지역 리서치 헤드

"이 일이 발생하기 전에도 우리는 원화에 대해 특별히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이는 한국의 내수 부진이 심각해 한국은행이 최근까지 상당히 매파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의 통화 완화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더욱 심화시키는 추가적인 불확실성의 요소를 얻은 셈이다. 한국은행이 오늘 개입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이다.

불확실성이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쳐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국제 분야에서 실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 ◆ 프란시스 청, OCBC은행 외환 및 금리 전략 팀장

"달러/원 급등은 일시적인 반응이었다.

전반적인 시장 반응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계엄이 해제된 점도 주요 요인 중 하나다."

- ◆ 린다 램, UBP 북아시아 에쿼티어드바이저리 팀장

"비상계엄 사태는 한반도 내 갈등의 고조라기보다는 국내 정치적 갈등으로 보인다.

주식 시장의 경우, 환율이 대체로 안정적인 한 국내 혼란이 지속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관세와 환율 역풍을 고려하여, 한국 주식을 포함한 신흥시장 주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 데이비드 차오, 인베스코 글로벌 시장 전략가

"상황은 여전히 역동적이고 변화하고 있어 시장이 지속적으로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태는 매우 단기적인 일시적 충격에 그칠 것이며, 경제와 금융 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이번 사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상쇄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남아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수 있

다.“

◆ 사트 두라, 싱가포르 야누스헨더슨 아시아 배당인컴 포트폴리오 매니저

"이 상황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정치적 도박으로 보인다. 나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에 추가 투자할 계획이 없다. 시장이 저렴하고 성적이 부진한 것은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요인이지만, 원화가 안정화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투자자들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경계하고 있으며 이는 이러한 심리를 더욱 강화할 뿐이다. 탄핵 가능성, 정권 교체로 인한 불확실성,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거시경제 전망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나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을 추가하고 싶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수출업체에 불확실성을 더할 것이다.“

◆ 다니엘 탄, 싱가포르 그래스호퍼에셋매니지먼트 포트폴리오 매니저

"장기적으로 계엄령 이슈는 한국 관련 자산, 주식, 외환, 채권 거래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 부각시킬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반영하듯 현재 한국의 주식 벤치마크인 코스피는 1년 선행 주가순자산비율이 0.8배이지만, MSCI 세계 지수는 3배에 가까운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원화 및 한국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더 큰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공약을 유지하는 한 한국에서 매도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美 "윤 대통령 계엄령 선언은 '심한 오판'"

워싱턴, 12월5일 (로이터)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결정은 "심각하게 잘못된 판단"이며,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 불법적"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캠벨은 아스펜 전략 포럼이 주최한 행사에서 미국이 핵심 동맹국도 몰랐던 것이 정보 실패인지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 등 한국 내 거의 모든 미국의 대화 상대들이 윤 대통령의 조치에 "매우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은 "매우 예측할 수 없었고 가능성이 낮았다"며 "윤 대통령이 심하게 잘못 판단한 것 같다. 그리고 과거 계엄령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캠벨은 한국의 심각한 정치적 양극화와 분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양쪽 정치권이 이 조치가 "매우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는 사실은 한국 민주주의의 힘에 대한 안심할 수 있는 찬사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것이 매우 불법적인 절차이며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몇 달 동안 한국은 "도전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며 미국의 목표는 한국과의 동맹이 "절대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4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의도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단독)-美, 中 반도체 장비업체 등 140개 기업 수출 규제..삼성전자도 영향

12월2일 (로이터) - 미국은 2일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 3년 만에 세 번째 단속을 시작할 것이며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나우라테크놀로지그룹002371.SZ 을 포함한 140개 회사에 대한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고 정통한 소식통 2명이 밝혔다.

또 중국의 반도체 장비업체인 피오테크688072.SS와 신카이라이테크놀로지도 새로운 수출 제한 조치로 타격을 입을 것이며, 이는 고급 메모리 칩과 더 많은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선적을 겨냥한 것이다.

이 조치는 군사 응용 분야를 위한 인공지능(AI)을 발전시키거나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칩에 접근하고 생산하는 중국의 능력을 방해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노력 중 하나다.

이는 바이든의 대중 강경 조치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나온 것이다.

이번 조치에는 AI 훈련과 같은 하이엔드 애플리케이션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칩의 중국으로의 선적 제한, 24개의 추가 반도체 제조 도구와 3개의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한 새로운 제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국가에서 제조된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새로운 수출 제한이 포함된다.

이러한 반도체 장비 규제는 램리서치LRCX.O, KLAKLAC.O,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O는 물론 네덜란드 장비 제조업체 ASM 인터내셔널ASMI.AS과 같은 미국 외 기업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새로운 규제에 직면한 중국 기업 중에는 거의 24개 반도체 회사, 2개 투자 회사, 100개 이상의 반도체 제조 장비업체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 의원들은 스웨이슈어테크놀로지, 칭다오시엔, 선전펜션테크놀로지 등 일부 기업이 한때 미국의 제재에 발목이 잡혔지만 지금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및 개발의 중심에 있는 중국 화웨이테크놀로지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공급업체가 특별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는 이들에게 제품을 공급할 수 없도록 하는 기업 목록에 추가될 것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첨단 칩과 이를 만드는 도구의 수출을 제한함에 따라 반도체 분야에서 자급자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AI 반도체 분야의 엔비디아NVDA.O와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네덜란드의 ASMLASML.AS과 같은 반도체 업계 선두주자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몇 년 뒤쳐져 있다.

미국은 또한 2020년에 규제 리스트에 올랐지만 수십억 달러 상당의 제품 출하 라이선스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중국 최대 위탁 반도체 제조업체인 세미컨덕터매뉴팩처링인터내셔널0981.HK에 대해서도 추가 제한을 가할 예정이다.

미국은 처음으로 칩에 투자하는 두 회사를 기업 목록에 추가할 예정이다. 중국 사모펀드 회사인 와이즈로드캐피털과 기술 회사인 잉테크테크놀로지600745.SS가 추가된다.

리스트에 있는 기업에 배송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거부된다.

◆ 네덜란드 및 일본 면제

해외 직접 제품 규칙을 다루는 새로운 패키지의 한 측면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으로 배송할 수 있는 품목을 제한함으로써 일부 동맹국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새로운 규칙은 미국, 일본, 네덜란드 제조업체가 세계 다른 지역에서 만든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의 특정 반도체 공장으로 수출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권한을 확대할 것이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스라엘, 대만, 한국에서 제조된 장비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네덜란드와 일본은 제외된다. 확대된 해외 직접 제품 규정은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 제조 야망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업 목록에 있는 16개 기업에 적용된다.

이 규칙은 또한 특정 외국 품목이 미국의 통제 대상이 되는 시기를 결정하는 미국산 콘텐츠의 양을 제로 수준으로 낮출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해외에서 중국으로 배송되는 모든 품목에 미국 칩이 포함된 경우 규제할 수 있다.

새로운 규제는 미국과 함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및 네덜란드와 오랜 논의 끝에 발표되는 것이다. 미국은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규제는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 미국에 본사를 둔 마이크론이 만든 기술인 "HBM 2" 이상에 해당하는 AI 칩에 사용되는 메모리를 제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005930.KS만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된 반도체 관련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의 세 번째 주요 패키지다. 2022년 10월, 미국은 1990년대 이후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로 여겨지는 특정 하이엔드 칩의 판매 및 제조를 억제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10월 국민연금 등 연기금 해외주식 매각..지난 2월 이후 처음

서울, 12월6일 (로이터) -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10월 해외주식을 8개월 만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10월 경상수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해외주식 자산이 약 4억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이 해외주식을 팔아 자금을 국내로 들여왔다는 의미다.

이러한 해외주식 감소는 지난 2월(-6.5억달러)이후 처음이다. 해외채권은 약 10억달러 순증했다.

10월 연기금 등의 해외주식이 감소한 배경으로는 차익실현 영향으로 해석된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주요 IT 기업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4분기 실적 전망 예상치 하회 및 자본지출 증가에 대한 우려에 따른 가격 하락 위험 리스크와 11월 대통령선거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준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달러/원 환율은 약 4.5% 오르며 2023년 1월 이후 최대 월간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11월 국민연금이 해외자산 리밸런싱 등의 이유로 달러를 매도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작년 연기금 등의 월평균 해외주식 자금은 약 20억달러 수준이다.

(박예나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